

임기 1년 남은 조사위 '오월 진실 규명되나'

내년 상반기 발포 경위 및 책임·암매장 등 쟁점 청문회 지휘부 조사 절반 마쳐...현재 목표 70% 달성 자체평가

활동 종료 1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내년 상반기 발포 경위 및 책임, 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이를 통해 그간 베일에 싸인 80년 오월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내년 3~5월 사전조사를 끝낸 발포 경위와 책임·중대 인권 침해사건·민간인 집단 학살·가(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2019년 출범한 이래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전두환 내란집단,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20사단, 전투 교육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약 82명 중 44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또 약 2천100명의 계엄군을 직접 면담해 500건이 넘는 진술서·녹취록과 3천여명에 달하는 피해자·희생자 유가족·목격자 등 1천500여명의 증언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조사위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관 받은 60만쪽의 자료 외에 지난 3년간 40만쪽 분량의 국내

의 신규자료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신규자료에는 대통령기록관·국정원·국군방첩사령부·육군기록정보관리단·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중앙정보국·국방정보국·백악관 등 미공개 기밀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6월부터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단을 꾸리고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위는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및 헬기 사격 의혹 규명·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민간인 집단학살·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은폐 등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따라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이다.

피해자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 사건도 동시에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조사 목표 대비 70% 달성률을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향후 1년 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진상규명은 역사 정의의 바로 세우는 초석인 동시에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이후 조사위는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 /안재영기자

북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최우수'

광주 북구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저신용자 재기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금융지원 성과에 대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지자체 4곳과 우수 지자체 9곳을 선정했다.

평가에서 북구는 3무(無) 특례보증, 등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시책을 높게 평가받았다. /안재영기자



“쌀 1천4포대로 사랑 나눠요” 연말연시를 맞아 27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 후원한 '사랑의 쌀 1004포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날 구청 직원들이 관내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쌀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에 싣고 있다. /김영근기자

교권침해 중대 처분 학생부 기재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력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 인권 보장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산복지재단 '설립 첫걸음'...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열어 다양한 의견수렴 기본계획 수립

광주 광산구가 복지재단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광산구는 27일 "전날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가칭 '광산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복지재단설립자문위원회', 실무부서 협업 TF 등이 참석했

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설립할 복지재단의 역할, 수행사업, 조직, 인력, 예산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특히, 재단이 설립 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광산구는 주민 설문조사, 종사자 시설장 등 관계

자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및 의회와의 소통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이를 반영해 재단의 기본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2023년 3월까지다. 광산구는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광주시와의 협의 등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연말 복지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이육근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인천	☁	-6/-3
서울	☀	-6/-2
대전	☁	-4/-1
전주	☁	-2/2
광주	☁	-4/3
목포	☁	0/5
부산	☀	3/5
제주	☁	5/9
울산	☁	1/6
대구	☁	-2/3
충청	☁	-4/1
경상	☀	-1/4
강원	☀	-10/-2
충청	☀	-10/-2
경상	☀	-10/-2
강원	☀	-10/-2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70 (준비운동은 충분하)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5:32	10:43
목포	30-30	목포	18:20	23:28
순천	20-30	여수	00:19	06:16
여수	20-30	여수	13:01	19:12

시간	해상	바다	북서-북	북서-북
오전	알바다	☁	북서-북/0.5-1.0m	북서-북/0.5-1.5m
오후	알바다	☁	북서-북/0.5-1.0m	북서-북/0.5-1.5m

시간	해상	바다	북서-북	북서-북
오전	알바다	☁	북서-북/0.5-0.5m	북서-북/0.5-1.5m
오후	알바다	☁	북서-북/0.5-1.0m	북서-북/0.5-1.5m

시간	전라(광주)	서울(경기)	강원(영동)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2월 29/목	☁ (-5/4)	☁ (-8/-1)	☀ (-4/4)	☁ (-7/1)	☁ (-5/4)	☁ (4/8)
30/금	☁ (-4/5)	☀ (-6/1)	☀ (-3/6)	☁ (-5/3)	☀ (-4/5)	☁ (4/8)
31/토	☀ (-4/6)	☀ (-6/4)	☀ (-3/7)	☀ (-5/5)	☀ (-3/6)	☁ (4/10)

시교육청, 청소년 홍보단 '5·18 푸른새' 명명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 5·18 홍보단'의 이름 짓기, 슬로건, 캐릭터 공모전 결과 우수작 3건, 가작 18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12일 공모작을 접수해 적합성, 대중성, 창의성, 활용 가능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청소년 5·18 홍보단 이름 짓기 우수작은 '5·18 푸른새'가 선정됐다. 시간과 장소, 더 나아가 어떠한 외압에도 구애받지 않는 5·18 청소년 홍보단의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의지를 나타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슬

로건 우수작으로는 5·18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면서 평화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된 오월과 함께 평화로'를 선정했다. 캐릭터 분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이 만든 주먹밥이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상징물이라는 생각을 담아 주먹밥을 활용해 만든 캐릭터 '민주·인권·평화'가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름, 슬로건, 캐릭터는 청소년 5·18 홍보단 활동 시 활용할 예정이다. /임채만기자

남부소방서 대촌119안전센터 개청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7일 '남부소방서 대촌119안전센터' 개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촌119안전센터 건립은 예너지밸리 산업단지 외곽 지역주민에 대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고 소방차 골목 진입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청사는 총정 3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이달 완공됐다. 건물은 연면적

997.61㎡, 지상 3층 규모로 1층 사무실·차고·감염관리실·방화복 세탁실, 2층 신신안정실·대기실, 3층 의용소방대실·체력단련실·통신실 등으로 구성됐다.

대촌119안전센터는 소방인력 25명, 차량 4대가 배치돼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촌동 일대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정자 남부소방서장은 "원거리 지역 출동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청사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